

“목회자의 인내, 변화의 비결입니다”

## 안기성 목사의 **사람 세우기**



안기성 목사

건강한 성도들을 만드니까  
건강한 교회가 만들어지고,  
건강한 교회 현장을  
자주 접촉하다 보니  
교역자도 건강해졌다.  
수적 부흥에 대한 부담은  
어떤 교회든 있는 법이다.  
교회가 건강해지니까  
성도들이나 교역자나  
참고 기다리는 인내가 있다.  
결코 성공병에 사로잡히거나  
허상을 쫓아가지는 않는다

1991년 양문교회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빛의교회(안기성 목사, 인천 만수동 소재)는 아직까지 독립된 건물을 소유하지 않은 전형적인 상가 교회이다. 그리고 장년 출석 인원이 350여 명, 주일학교가 400여 명 모이는 중형 교회이다. 그런데 빛의교회가 지금까지 선교지에 건립한 교회가 6곳에 이른다. 보통의 경우와는 순서가 바뀐 셈이다.

빛의교회가 자리하고 있는 지역사회는 그리 부유한 지역이 아니다. 개척 초기 때로 거슬러 올라가면 지금의 결과는 거의 신화처럼 느껴질 정도이다. 하루를 벌여 그날을 살아야 하는 우리네 보통 사람들이 터를 잡고 살아가던 도시 변두리 조용한 마을이 바로 14년 전 빛의교회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사역지였다.

다른 이들을 돕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들에게 안 목사는 좁은 자신들의 마을을 넘어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었을 뿐 아니라 건강하고 성숙한 인생으로 인도하는 삶의 안내자였다. 무엇이 이런 일들을 가능하게 했을까? ‘개척불가능’을 말하는 이들이 많다. 부흥의 시대는 끝이 났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건강한 교회들은 엄연히 존재하고 그 영향력을 키워나가고 있다.

### III 배운 대로 하는 법이다

지금의 모습을 갖기까지 안 목사에게 영향을 끼친 3개의 교회가 있다. 첫 번째는 교육전도사와 부목사로서 사역을 감당했던 대방교회이다. 안 목사는 대방교회에서 선교하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배웠다. 빛의교회가 개척 초기부터 한 축으로 삼았던 ‘전파하는 교회’의 뿌리가 바로 대방교회이다. 두 번째 교회는 빛의교회를 개척하기 전까지 사역했던 양문교회이다. 안 목사는 양문교회로부터 교회 교육에 대해 배웠다. 선교와 함께 한 축이 되었던 ‘가르치는 교회’의 뿌리가 바로 양문교회였다. 세 번째 교회는 안 목사의 목회 전반의 틀을 결정해 준 사랑

의교회이다. 바로 제자훈련을 만난 것이다.

제자훈련을 만난 안 목사는 개척 이전부터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고 홀로 서는 평신도, 사역하는 평신도를 세우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개척과 함께 지금까지 평신도가 사역하는 건강한 교회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향해 집중하고 달려왔다. 교회 교육이라고 하면 주일학교 교육만을 생각하지만, 안 목사에게 있어 교육은 장년 교육까지를 포함한 전체 성도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물론 이때 장년 교육은 바로 제자훈련을 통한 실제적인 삶과 신앙의 변화를 의미한다.

안 목사는 “제자훈련을 통해 교인이 건강해지고 교회가 건강해지니까 교역자가 건강해졌습니다. 건강한 성도들을 만드니까 건강한 교회가 만들어지고, 건강한 교회 현장을 자주 접촉하다 보니 교역자도 건강해지더군요.”라고 제자훈련을 통해 얻은 성과를 정리한다. 덧붙여 강조하기를 “수적 부흥에 대한 부담은 어떤 교회든 있는 법입니다. 빛의교회도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건강해지니까 성도들이나 교역자나 참고 기다리는 인내가 있습니다. 결코 성공병에 사로잡히거나 허상을 쫓아가지는 않습니다”라고 한다.

### III 인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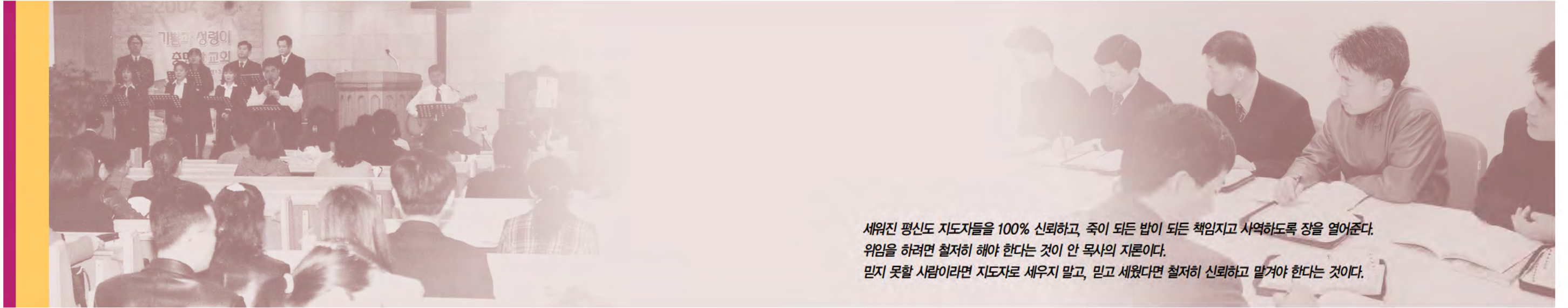
안 목사는 CAL세미나를 통해 ‘현장 속에서 사역해야 할 성도들을 배움의 틀 속에서만 넣어두어서는 안 된다’는 깨달음을 얻었다. 이전까지 안 목사가 보아왔던 대부분 교회들의 경우 성경공부를 중심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에 시작은 있었지만 끝이 없었다. 하나의 코스가 끝나면 또 다른 코스가 기다리고

있었다. 배우는 것만 연속하다가 막상 사역의 현장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다.

안 목사는 이런 문제의 해결점을 제자훈련에서 찾았다. ‘스스로 서고 일하는 평신도를 만들기까지는 제자훈련이 전부다. 그 이후 더 이상의 교육은 없다’라고 결단하고 제자훈련에 집중했다. 제자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여타의 프로그램 없이도 충분히 홀로 설 수 있는 평신도를 세울 수 있다는 것이 안 목사의 목회관이다.

그런데 안 목사의 이런 목회철학을 적용하고 실천하기에는 빛의교회가 자리한 지역이 그리 좋은 환경이 되지 못했다. ‘귀납적’이란 단어는 들어본 적도 없고 성경공부라고는 단답형 형식에만 길들여진 사람들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달걀로 바위치기에 가까운 일이었다. 큐티와 같이 성경을 읽고 깊이 묵상하면서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것들은 기대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사실 제자훈련을 통해 길러진 평신도 사역자들이 각자의 은사를 따라 여러 사역을 맡아서 사역할 수 있지만, 제자훈련을 통해 우리가 1차적으로 목표하는 것은 교회를 이루는 근간이 되는 소그룹을 맡아 사역할 평신도 말씀 사역자를 길러내는 것이다. 그런데 빛의교회의 경우에는 아예 글을 읽고 이해하는 기술부터 가르쳐야 될 형편이었다. 그래서 안 목사는 훈련 기간을 늘려 잡고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을 하나로 묶어 4년의 훈련 커리큘럼을 만들었다. 훈련생들을 평신도 사역자로 세우기 위한 대학이 설립된 셈이다.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



세워진 평신도 지도자들을 100% 신뢰하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책임지고 사역하도록 장을 열어준다.  
 위임을 하려면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이 안 목사의 지론이다.  
 믿지 못할 사람이라면 지도자로 세우지 말고, 믿고 세웠다면 철저히 신뢰하고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안 목사가 집중한 것은 지적인 능력의 재고가 아니라 삶의 구체적인 변화였다. 자칫 제자훈련이 지적 유희로 흐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안 목사는 제자로서의 삶에 관한 구체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그에 관한 실제적인 도구들을 훈련생들에게 제공했다. 예를 들어 기도에 대한 훈련을 할 때, 기도의 중요성만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매일의 기도를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평가하고 점검할 수 있는 시트를 만들어 나누어 주고 기록하도록 했다. 섬김에 대한 훈련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섬김 일지'를 기록하도록 해서 섬김이 머릿 속에만 머물지 않고 실제 생활로 이루어지도록 했다.

이런 구체적인 도구 외에도 훈련 과정에 다양한 교육 방법이 도입되었다. 때로는 영상물을 함께 보고 서로의 소감을 나누면서 본문과 상황을 읽어내는 능력을 키우는 등의 훈련을 단계적으로 실시했다. 제자훈련 1기생들의 경우에는 5년의 시간을 투자했다. 이렇게 길어진 훈련 기간을 견디지 못해 지쳐서 떨어져나간 훈련생들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내기까지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간들이었다.

길어진 훈련과정은 훈련생들에게만 부담이 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안 목사 본인이 가장 큰 부담을 질 수밖에 없었다. "인내의 시간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힘든 일도 많았고 포기하기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워진 뚜렷한 목표가 있고 사명이 있기에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시간이 필요합니다." 안 목사의 말처럼, 빛의교회 제자훈련에는 특별함이란 없다. 제자훈련에서 다루는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역량과 자질을 기르는

데 인내하였기에 지금의 열매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 III 위임하려면 철저히 위임하라

일반적으로 제자훈련을 통해 세워진 평신도 지도자를 '작은 예수', '평신도 목사'라고 부른다. 그런데 실제의 현장에서 이름에 어울리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는 별개의 문제이다. 불리는 이름만 바뀐 채 스스로 사역하는 사역자가 아니라 여전히 수동적인 위치에서 더 큰 사역의 짐만 지고 있을 수도 있다. 이것은 얼마나 철저히 훈련을 했고 또 얼마나 성실히 훈련을 받았는가와도 별개의 문제이다. 문제의 핵심은 평신도 지도자에 대한 담임목회자의 동역의식이다. 평신도 지도자를 사역에 있어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가의 문제인 것이다.

현재 빛의교회에는 5개의 마을(교구)에 40개의 목장(소그룹)이 있다. 목장을 인도하는 40명의 목자와 그들을 섬기고 돕는 5명의 마을장이 사역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제자훈련을 수료했거나 과정 중에 있는 평신도 사역자들이다. 안 목사는 세워진 평신도 지도자들을 100% 신뢰하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책임지고 사역하도록 장을 열어준다. 위임을 하려면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이 안 목사의 지론이다. 믿지 못할 사람이라면 지도자로 세우지 말고, 믿고 세웠다면 철저히 신뢰하고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들 평신도 사역자들 뒤에는 교역자들이 있다. 교역자의 역할에 대해 안 목사는 "교역자는 평신도 지도자를 양육하고 사역할 수 있도록 구비시키는 역할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평신도 지도자들이 지속적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관련된 일들을 연구하고 섬기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평신도 지도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부분

들을 맡아서 수고해야 합니다"라고 말한다. 사역의 주역이 훈련을 통해 세워진 평신도이어야 함을 강조한다.


이런 목회철학을 실천해 오는 일에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4년이나 되는 긴 시간을 투자해 훈련시킨 지도자가 이단의 유혹에 넘어졌던 일이 있었다. 그 지도자를 따라 목장 하나가 완전히 떨어져나갔을 때 그 마음이 어떠했겠는가? 이런 일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목사는 목장은 목자가 책임을 지고 사역하는 곳이고 마을은 마을장이 책임을 지고 사역하는 곳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앞으로는 마을이 하나의 교회로 세워지기를 바라고 있다. 그래서 올해는 마을별로 전도축제를 열도록 도전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철저히 위임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평신도 지도자들이 담임목회자의 목회철학을 이해하고 공유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막연히 이해하고 있는 수준이 아니라 평신도 지도자 자신의 것으로 체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안 목사는 제자훈련과 이후의 목사 모임을 통해 지속적으로 교회론을 강조했다.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특성, 특히 초대 교회가 가정교회였음을 강조함을 통해 각 목장과 세워진 목장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도록 했다.

그런데 늘 경험하는 바이지만 사람의 생각이 그리 쉽게 바뀌는 것이 아니다. 훈련의 과정을 통과하고 지속적으로 학습이 진행되어도 바뀌지 않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포기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된다. 그냥 두면 굶고 터지기 법이다. 특별히 철학적인 면에서 더욱 그러하다. 안

목사의 경우, 전통적인 교회관에 묶어 원칙적인 면에서 실제적인 면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목회철학에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집사님, 집사님 말고 계신 목장이 몇 명이나 모이죠? 집사님이 맡고 있는 목장보다 작은 교회도 많습시다. 10명 미만의 교회도 있습니다. 평신도 목사로서 집사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 큼니다. 집사님에게 맡겨진 목장 교회를 잘 감당하셔야 합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을 구원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라고 도전한다. 목장을 담당하는 담임목사로서 사역할 것을 확인시키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안 목사는 한 명의 평신도가 평신도 사역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끌고 있다.

### III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실패를 경험한다는 것, 사실 참기 힘든 일입니다. 온갖 열정과 정성을 다했는데 이런 일들이 생기면 기운이 빠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좌절할 수는 없습니다. 잘 안 되는 부분을 쳐다보면 기운을 잃지만 그때 시선을 돌려 잘 되고 있는 부분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하고 기운을 얻습니다. 한 목장의 무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명의 지도자를 잘못 세우면 목장이 무너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고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안 목사의 말에서 볼 수 있듯 담임목회자가 어떤 목회철학을 갖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목표가 분명하고 사명이 확실하다면, 옳은 일에 헌신하고 있다면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열매를 얻기까지 인내하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것이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비결이다. 

〈김건주 목사〉

박신애 집사(베들레헴마을 마을장)

# “제자라면 재생산은 기본이죠”



제자라는 말에 막연한 부담감만 안고 살 것이 아니라 제자훈련을 통해 어떻게 사는 것이 제자답게 사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훈련받는 것이 중요하다

제자훈련을 1기로 수료하고 마을장으로 섬기고 있는 박신애 집사는 제자훈련의 궁극적인 목표는 재생산이라고 힘주어 말한다. “제자라면 재생산은 기본이죠.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절대적인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체계적으로 신앙훈련을 받아본 경험이 전무했던 박 집사는 빛의교회에 출석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다. 제자훈련을 통해 막연하고 멀게만 느껴지던 ‘제자’라는 말을 자신의 것으로 만든 것이다. “제자훈련이 없었다면, 저는 전도하는 삶의 가치를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을 겁니다. 제자훈련의 핵심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삶의 모든 문제를 전폭적으로 맡기면서 사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제자훈련 이후 전도와 목장사역에 최선을 다해온 박 집사는, 목장 사역을 통해 사람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한다. “목장 안에서 다양한 기질과 스타일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세 딸을 키우면서도 느끼는 것이지만 각 사람에게 주어진 개성이나 은사, 기질이 참 다르다는 것을 배웁니다. 목자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쉽게 판단하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고 감싸고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들의 이런 저런 모습으로부터 우리가 기쁨을 얻듯이 하나님도 우리의 다양한 모습들을 보면서 기쁨을 얻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관계 전도를 통해 주변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박 집사는, 현재 빛의교회에서 교사로 사역하고 있는 동역자 한 명을 자신의 전도 열매로 소개했다. 처음에는 무슨 일만 있으면 자신에게 찾아와 상담하던 이가 이제는 오히려 박 집사 자신이 힘들 때면 찾아가 상담을 청하는 신실한 신앙인으로 되었다. “재생산의 열매를 맛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알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박 집사의 얼굴에는 사명의 충실함에서 오는 뿌듯함과 함께 기쁨의 미소가 보였다.

박 집사는 제자라는 말에 막연한 부담감만 안고 살 것이 아니라 제자훈련을 통해 어떻게 사는 것이 제자답게 사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훈련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제자가 되려면 제자훈련은 필수”라고 단언한다.